GLOBAL
EQUITY

2026. 1. 30.

글로벌주식팀

이영진 Analyst, CFA
youngjin91.lee@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앤스로픽 (Anthropic, 비상장)

3,5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지지하는 재무 전망 업데이트

- 앤스로픽은 프론티어 AI 기업 중 코딩 분야의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
- Claude Code 모멘텀은 비개발자 업무 영역에 적용된 Claude Cowork로 연결
- 신규 펀딩 라운드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 내부 재무 전망 상향도 지속

▶ 종목 정보

상장 예정일	미정
기업 가치	3,500억 달러(26년 1월)
매출액(ARR 기준)	90억 달러(25년 12월)
국가	US
산업	Software

WHAT'S THE STORY?

AI 코딩력으로 침투하는 엔터프라이즈 AI: 앤스로픽 Claude는 모든 능력치를 코딩에 끌어모아 장기간 작업, 멀티파일 리팩토링, 에이전틱 탐색 등 코딩 관련 벤치마크에서 SOTA 자리 유지. 산업 내 주요 인사들도 Claude가 코딩 분야에서 달성하는 개선을 강조. 내부적으로 이미 사람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모델이 작성하는 코드를 편집하는 단계라는 점도 향후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코딩 AI 분야 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앤스로픽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 향후 개화될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코딩 분야 성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

Claude Code와 Cowork로 이어가는 모멘텀: 앤스로픽의 B2B 집중은 기업 고객 경영진 사이에서 기업용 AI의 대표 공급자 이미지를 구축. 기반에는 Claude Code가 있고 이를 비개발자 영역으로 확장한 Claude Cowork도 주목할 필요. Claude Code의 ARR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Opus 4.5 적용에 따라 퀄리티와 생산성 개선 평가 확산. API 점유율 및 대규모 고객 숫자 등에서 오픈AI 대비 앞서는 모습. 오픈AI도 이에 대응해 엔터프라이즈 분야 공략을 위한 적극적 전략 실행 중

빅테크 모두와 손을 잡아 봅니다: 앤스로픽은 아마존에서 시작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로 빅테크와 캐파 관련 협력 강화. 빅3 빅테크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모두 협력. 이러한 확산 자체는 오픈AI가 보여준 행보와 유사하지만 오픈AI 대비로는 정제된 느낌. 캐파의 필요성이 다른 기업보다 작은 것은 아님. 방향성의 차이에서 기인. 필요한 영역에 가진 자원을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기업가치 3,500억 달러와 재무 전망 상향: 최근 신규 펀딩 라운드에서 거론되는 밸류는 3,500억 달러.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에 대한 막대한 관심 확인. 자체 재무 전망의 상향은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요인. '25~28년 매출 전망 합산은 1,800억 달러로 기존 대비 40% 상향. '29년 매출 전망 1,480억 달러는 오픈AI보다도 높은 수준. 잉여 현금흐름 흑자 전환 시점은 1년 지연되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 향후 매출 성장 가속화에 따른 비용 관련 우려 해소 기대

코딩력으로 침투하는 엔터프라이즈 AI

경쟁 AI 모델들이 글도 깔끔하게 잘 쓰고, 이미지도 잘 만들고, 센스 있는 답변을 하는 등 다양한 특징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앤스로픽 Claude는 모든 능력치를 코딩에 끌어 모으고 있다. 장기간 작업, 멀티파일 리팩토링, 에이전틱 탐색 등 코딩 관련 벤치마크에서 강력한 성능으로 SOTA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 내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앤스로픽의 지위가 설명되고 있다. 젠슨 황은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코딩과 추론 영역에서 앤스로픽이 달성한 개선을 강조하며,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Claude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머스크도 자사 직원의 Claude Code 접속 차단을 불평하는 내용의 포스팅에서 코딩 영역 내 앤스로픽의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안드레 카파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Claude Code 활용 이후 에이전트 코딩 비중이 11월 20%에서 12월 8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소회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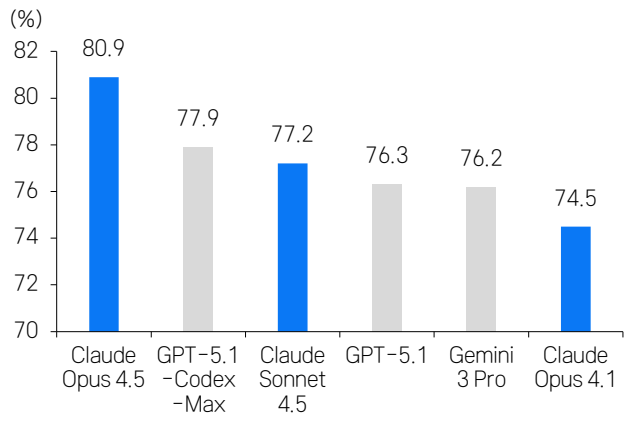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는 내부적으로 이미 사람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모델이 작성한 코드를 편집하는 단계라는 코멘트와 함께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기까지 6~1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앤스로픽 직원들이 신규 프로젝트 코드의 100% AI를 통해 작성했다는 발언은 이제 놀랍지 않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Claude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빌드 테스트 통과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도출하는 케이스가 많고, 적은 개입으로도 일관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을 꼽아 볼 수 있다. MCP 프로토콜 통합을 통해 타겟 생성, 문서화와 같은 개발자 워크플로우까지 자동화하는 것도 강점이다.

물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AI 기업이 코딩 전용 모델을 출시했고, API 호출 점유율 트렌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오픈AI Codex는 유저 및 사용량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앤스로픽의 지위는 여전하다. 앤스로픽이 오픈AI와 xAI 직원들의 제품 활용을 막은 것이 이슈가 되는 것도 그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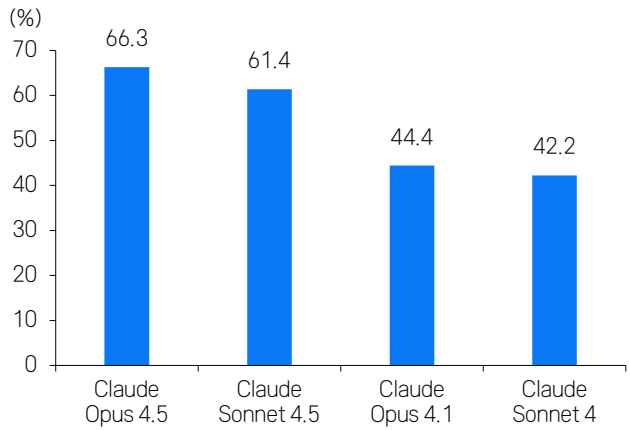
B2B에 올인해 AI 코딩 성능 개선에 모든 것을 쏟아 붙고 있는 전략은 향후 개화될 에이전틱 AI의 퍼즐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이다. 에이전트의 자동화 추구와 처리 가능 업무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구축된 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통한 신규 툴 생성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코딩 벤치마크에서 높은 정확도 기록한 Claude 모델



참고: SWE-Bench 기준 정확도
자료: Anthropic, 삼성증권

Claude 모델 별 Computer use 성능 비교



참고: OSWorld 벤치마크 기준 정확도
자료: Anthropic, 삼성증권

Claude Code와 Cowork로 이어가는 모멘텀

앤스로픽의 B2B 집중은 기업 고객 경영진 사이에서 기업용 AI의 대표 공급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성공의 기반에는 Claude Code(클로드 코드)가 있다.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과 IDE에서 활용되는 개발자용 에이전틱 코딩 에이전트다. 개발자가 지시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실행,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25년 12월 클로드 코드 내 Claude Opus 4.5 모델 통합 이후 코드 생성 품질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클로드 코드는 11월 ARR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앤스로픽 전체 ARR이 12월기준 90억 달러를 돌파한 주요 기반이다.

클로드 코드 성공에 힘입어 개발자 환경(터미널, IDE)에 국한되어 있던 에이전트 영역을 일반 업무 환경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올해 1월 출시한 Claude Cowork(클로드 코워크)가 시작점이다.

클로드 코워크는 클로드 코드의 에이전틱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만든 일종의 범용 에이전트이다. 기존 커넥터를 활용하여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고, 문서, 프레젠테이션 생성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들을 별도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비개발자들도 일반 업무 환경 내에서도 손쉽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특히 클로드 코워크는 사용자가 지정한 로컬 폴더에 직접 접근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파일 읽기, 수정, 정리, 결과물 생성까지 업무를 엔드 투 엔드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로컬 폴더를 지정하면 클로드가 해당 폴더 내 파일들을 읽고 직접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식이다. 클로드 코워크는 터미널/IDE 환경이 아닌 mac OS 앱에서 구동되며 Max, Enterprise, Team 플랜 유저에게 배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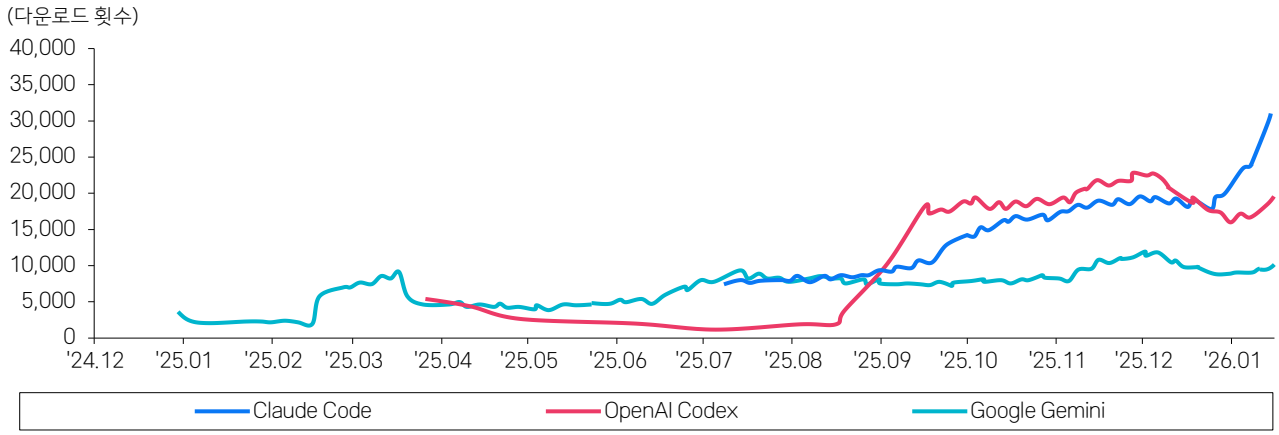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안전성 이슈는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마련이다. 클로드 코워크에 콘텐츠 분류기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프롬프트 인젝션 등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무 문서, 자격 증명, 개인 기록 등 민감한 로컬 파일 접근을 차단하거나 클로드 전용 폴더를 따로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앤스로픽은 최근 Claude 내부에서 슬랙, 피그마, 박스 등 앱을 직접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Interactive Claude 앱을 출시했다. Slack 메시지 초안 작성 및 전송, Figma 다이어그램 시각화 등과 같은 업무를 챗봇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엔터프라이즈 앱 연결을 통한 클로드 코워크와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25년 앤스로픽의 엔터프라이즈 LLM API 점유율은 40%, 코딩 시장 점유율은 54%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물론 API 외에 엔터프라이즈에게 제공하는 챗GPT 구독까지 고려하면 엔터프라이즈 전체 사업 규모는 오픈AI가 클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오픈AI가 기존 개인 챗GPT 유저가 회사 내에서 AI 기능을 전파하는 바이럴 전략을 넘어 적극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분야 공략을 위한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그만큼 앤스로픽이 엔터프라이즈 시장 내에서 보유한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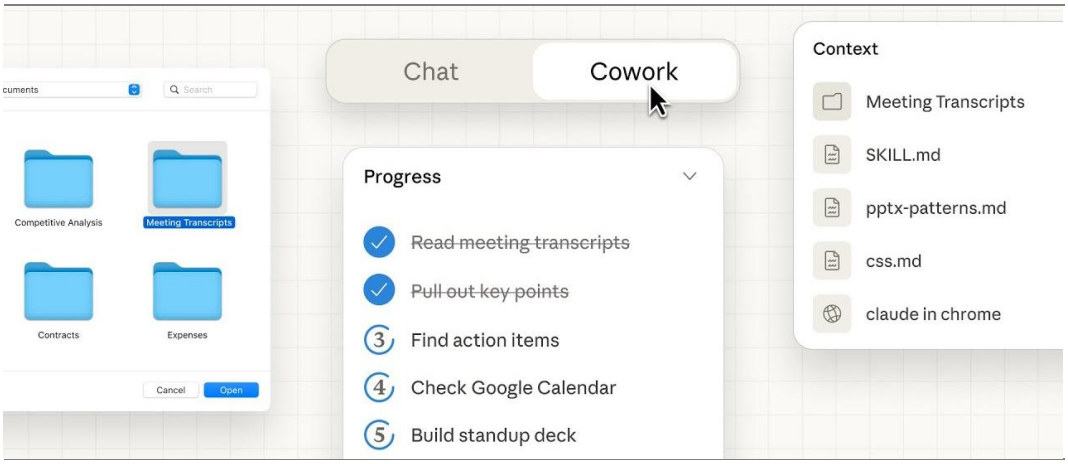
엔터프라이즈 고객 수 측면에서 오픈AI는 1억 달러 규모 고객 7개와 7,500만 달러 이상 고객 6개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앤스로픽은 1억 달러 규모 고객이 9개로 더 많다. 7,500만 달러 고객은 단기간에 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앤스로픽의 성과가 상당하다. 25년 8월 기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은 30만 개 이상이다.

Visual Studio Code 내 AI 코딩 툴 설치 추이: 1월 이후 Claude Code 사용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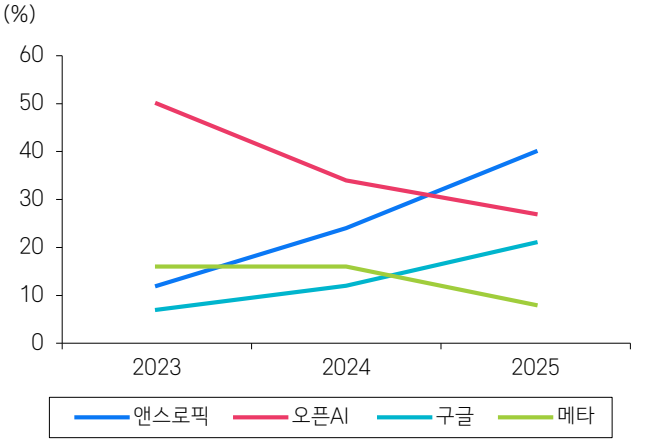
참고: 다운로드 횟수는 일일 기준이 아닌 30일 이동 평균 기준임.
자료: Bloomberry, 삼성증권

Claude Cowork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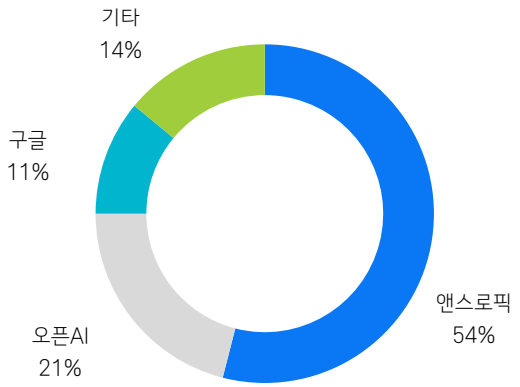
자료: Anthropic, 삼성증권

엔터프라이즈 LLM API 점유율 추이



자료: Menlo Ventures, 삼성증권

코딩 시장 점유율(2025년)



자료: Menlo Ventures, 삼성증권

빅테크 모두와 손을 잡아 봅니다

앤스로픽의 빅테크 협력과 캐파 확장 계획의 타임라인은 상당히 흥미롭다. 특정 파트너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클라우드 빅3를 포함한 빅테크 모두와 손을 잡기 위한 노력 중이다.

앤스로픽에 대한 공격적 투자(80억 달러)로 첫 번째 깐부 자리를 꿰찬 것은 아마존이었다. '25년 6월 앤스로픽 Claude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아마존 자체 반도체 Trainium을 활용한 프로젝트 레이니어(Project Rainier)가 발표되었다. 인디애나 주에 데이터센터 30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최종 목표 캐파는 2.2GW 수준이다. 3Q 기준 Trainium 2 50만 개가 배치되었고, 연말까지 10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10월 앤스로픽은 구글과 협력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 사용 확대와 최대 100만 개의 TPU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26년까지 1GW 이상의 캐파 확보가 목표다. 구글도 앤스로픽의 초기 투자자(30억 달러) 중 하나이고, TPU의 가성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글 파트너십까지는 컴퓨팅 캐파 확장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25년 중반 앤스로픽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델 제공 및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저 사이에서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운영 중단 및 복구 시간이 길고, 서비스 중단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내 자체 컴퓨팅 캐파 확장을 위한 500억 달러 투자도 확장의 연장선이다. Fluidstack과 협력해 텍사스와 뉴욕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다.

나아가 '25년 11월에는 파트너십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 확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300억 달러 규모의 Azure 컴퓨팅 캐파 약정 계약을 체결했고, 최대 1GW 규모 캐파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Microsoft Foundry 내 Claude 모델 제공 및 엔터프라이즈 제품군 통합을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코파일럿의 부진을 반전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앤스로픽 모델을 고려하는 가운데 Azure 고객까지 확보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다.

엔비디아와는 심층 기술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반에서 협력해 Claude 모델의 성능, 효율성, TCO 개선을 도모한다. 앤스로픽의 약정 캐파(최대 1GW)는 엔비디아 Grace Blackwell 및 Vera Rubin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확장은 오픈AI가 보여준 행보와 유사하다. 하지만 오픈AI가 대규모 캐파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1.4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앤스로픽의 확장 규모 및 파트너십은 조금 더 정제되어 있다.

앤스로픽 사장이자 공동 창업자인 다니엘라 아모데이(다리오 아모데이의 여동생)는 앤스로픽의 기본적 캐파 전략을 엄청난 컴퓨트가 필요한 영역에서 가진 자원을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트와 자본 측면에서 항상 경쟁사들이 가진 것의 일부만 보유해왔지만, 그럼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일관되게 강력하고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캐파의 필요성이 다른 기업보다 작은 것 아니다. 방향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오픈AI가 광범위한 연구 분야와 제품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앤스로픽은 텍스트 기반 AI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B2C 대비 B2B는 고객의 지출 예측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기업가치 3,500억 달러와 재무 전망 상향

최근 앤스로픽의 신규 자금 조달 라운드 관련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거론되는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로 '25년 9월 1,830억 달러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VC 및 금융 투자자 대상 자금 조달이 기존 목표 100억 달러에서 상향된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목표 금액의 5~6배에 달하는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주요 참여 기관으로 Coatue, GIC, Sequoia Capital, Iconiq Capital, Lightspeed Venture, Menlo Venture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엔비디아가(100억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50억 달러)가 합산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이번 라운드 최대 자금 조달 규모는 3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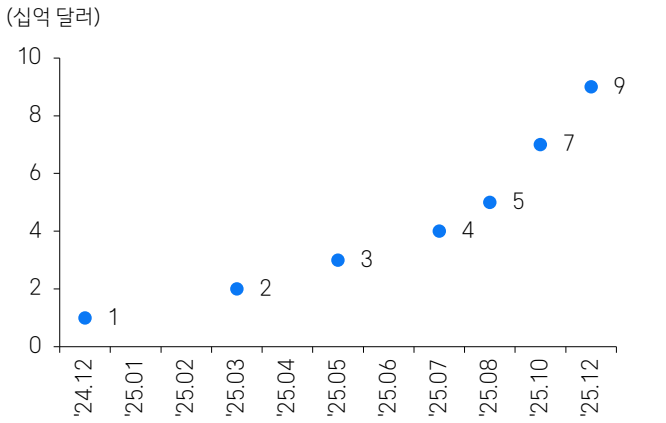
오픈AI는 현재 8,300억 달러 밸류로 펀딩 라운드를 돌고 있다. '25년 말 ARR(연 환산 매출) 기준 멀티플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유사한 수준이다. 오픈AI은 8,300억 달러/200억 달러=41.5배, 앤스로픽은 3,500억 달러/90억 달러=38.9배다. 앤스로픽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규모에서 오는 할인 요인을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안정성 프리미엄으로 상쇄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자체 재무 전망의 상향은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25~28년 매출 전망 합산은 1,800억 달러로 기존(1,288억 달러) 대비 40% 상향되었다. 특히 '29년 매출 전망 1,480억 달러는 오픈AI의 1,450억 달러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오픈AI 매출 전망은 '25년 중순 제시된 만큼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무 업데이트에서 잉여 현금흐름(FCF)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은 기존 '27년에서 '28년으로 지연되었다. 비용 증가 때문이다. 오픈AI도 유사하게 흑자 전환 시점을 '29년에서 '30년으로 지연한 바 있다. 예상보다 높은 추론 비용에 따라 '25년 매출 총이익률 전망을 50%에서 40%로 10%p 하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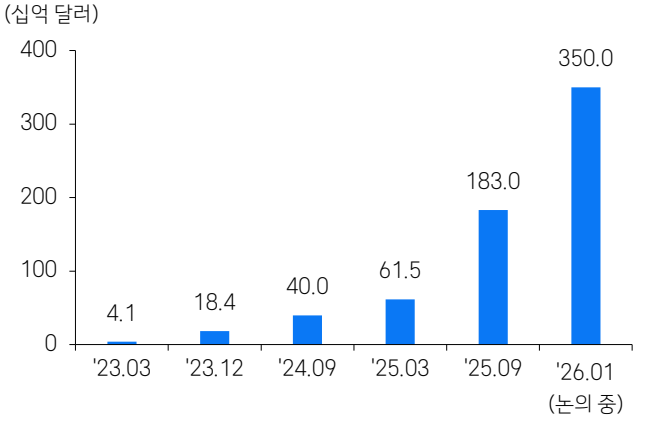
오픈AI와 앤스로픽 모두 자체 설정한 매출 전망을 빠르게 돌파하며 단기간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학습과 추론에 활용되는 컴퓨팅 비용과 기타 운영 비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재 영입 경쟁 격화에 따른 주식 기반 보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비용을 무한하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무 전망 변화의 방향성은 AI 산업 성장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다. 반면 현금 흐름 흑자 전환 시점 지연에도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향후 매출 성장이 추가로 가속화된다면 비용 관련 우려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앤스로픽 AR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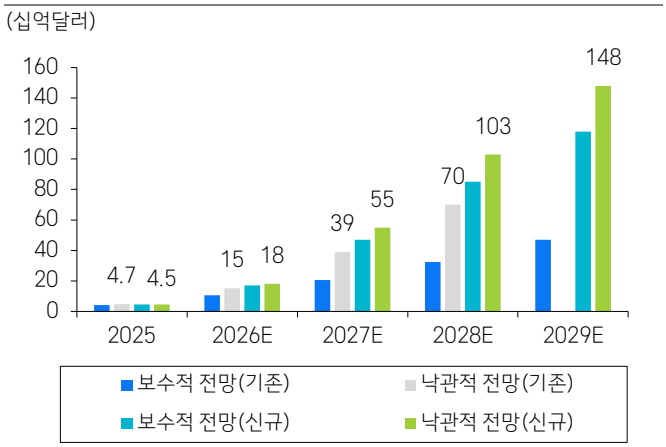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 밸류에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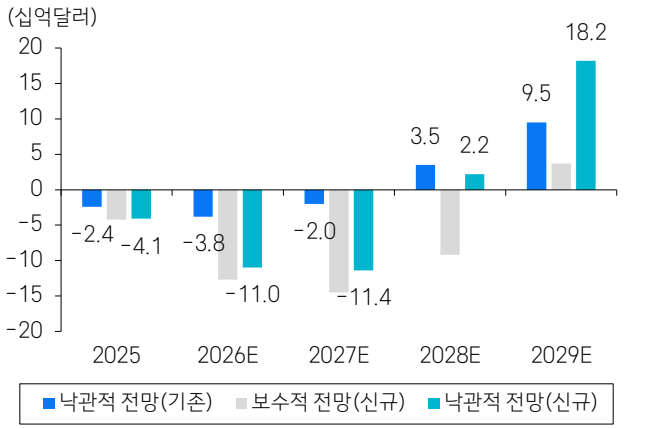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 매출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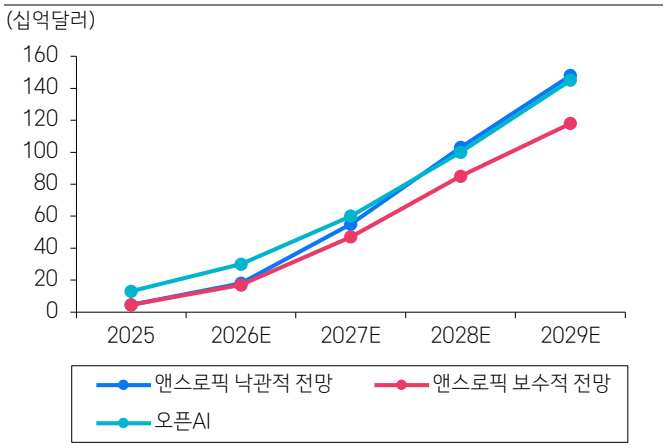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 잉여 현금흐름(FCF)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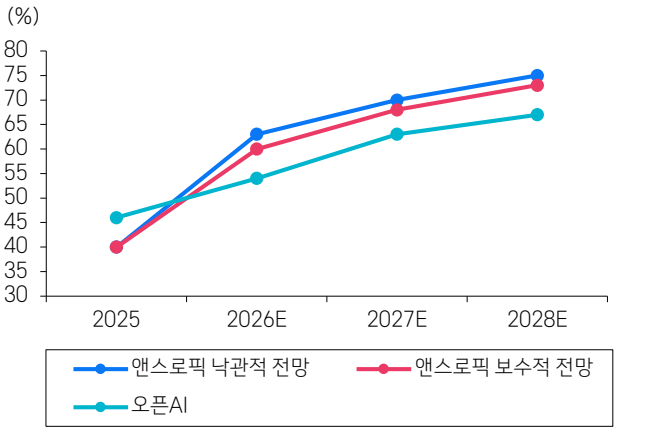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과 오픈AI 매출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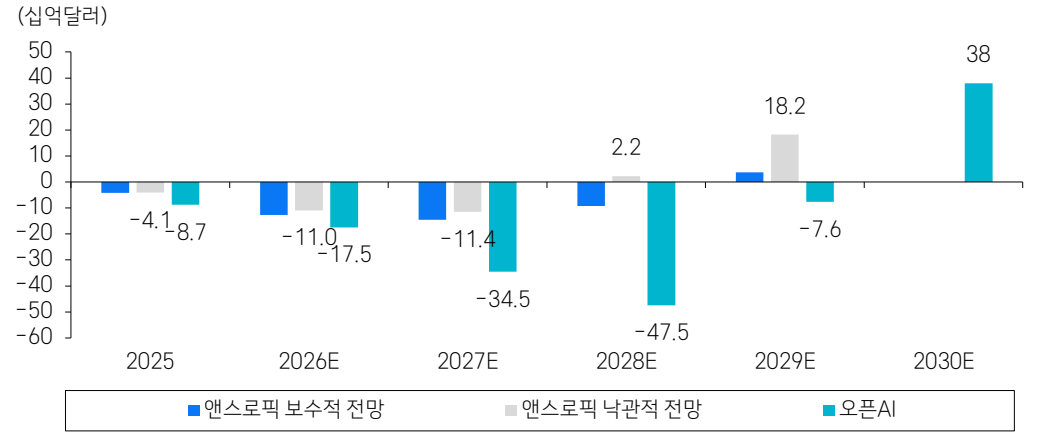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과 오픈AI 매출총이익률 비교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과 오픈AI 잉여 현금흐름 전망 비교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1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